말레비치 - 정신의 혁명을 부르짖으며 추상미술 전개

몬드리안 – 신조형주의 창설. 추상미술을 전개시키게 됨.

추상은 20c에 탄생. 1910~1913년 동안 전 유럽에서 창조가 되게 됨.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추상화가는 칸딘스키, 말레비치, 몬드리안.

9) 엘 그레코, 십자가 책형, 16c / 말레비치, <검은 십자가>, 1915 //

그레코 꺼는 성경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혀 죽은 것을 나타냄. 말레비치 것은 인생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고민, 고뇌, 고통, 불안, 공포.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지고 가야 할 고민, 고통, 불행, 슬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름.

10) 말레비치, <검은 사각형>, 1915 // 사각형은 누구나 그릴 수 있다. BUT, 사각형 하나만을 가지고 이 것이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1915년에 보여주고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혁신이고 혁명이다🡪미술의 혁명

1979년에 러시아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남. 글을 전혀 읽을 줄 모르는 문맹. 모스크바로 온 후, 러시아는 혁명이 싹트고 있는 시기. 빈부격차 심했고, 젊은이들은 사회에 대해 분노하고 변혁을 꿈꿈. 그 당시에 혁명을 앞서서 외치는 사람들이 미술가들이었음. 전시회 <사실주의에서 절대주의로> 36점을 위와 같은 작품 선보임. 코너에 사각형을 걸어놓음. 러시아는 집집마다 집의 코너에 이콘을 걸어놓는 풍속이 있다. 이콘은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 이콘 대신에 말레비치는 검은 사각형 하나를 걸어놓음. 사각형은 절대주의의 중심이 되는 형태 요소.

물질의 세계를 없애버리고 정신의 세계를 꿈꿈. 칸딘스키와 유사하나 다른 부분 있다. 정신의 혁명, 혁명을 꿈꿨다. 이 혁명은 누구나 평등하게 살고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인정받는 사회.

12) 말레비치, <흰색 위의 흰색 사각형>, 1918 // 절대주의 완성. 절대로 순수한 감성 (절대주의). 말레비치 종교적 성향 있음(신지학 영향 받음). 20c 추상미술의 탄생과 전개에 있어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신지학. 마치 불교에서 생각이 복잡할 때 명상을 통해서 완전히 자신을 비우는.. 무(廡)로 가는 감성이 절대주의 감성.

자신의 그림을 설명하는 <오브제 없는 세계>라는 책을 씀. 가장 완전한 표현이 흰색 위에 흰 사각형. 부제를 통해서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말레비치가 꿈꾼 세상과 러시아 혁명(1917)이 일어났을 때 세상은 달랐다. 마르크스 주의(유물론(지주, 귀족의 재산 뺏어서 가지는)에 기반). 말레비치가 꿈꾼 세상은 남의 것 뺏는 세상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모두가 평등한 세상. 인간으로 태어난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존재를 인정받는 세상 꿈꿈. 인간이 오브제에 의해 평등함, 존엄함을 드러내기 어렵다.

But 사실은..? 인간(학벌, 직업, 재산, 옷, 장신구 등..) 오브제에 의해서 사람들의 가치 결정된다.

오브제가 없는 세상 (말레비치가 꿈꾸는 세상) – 절대로 순수한 감성. 이 세상의 비극은 인간이 이름을 주면서 시작되었다. 모두가 물질을 버리고 정신적 세계가 되어 모두가 존엄함을 인정받는 세계로 나아가자(정신성의 혁명).

말레비치는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소비에트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면 몽상가로 보인다. 그러면서 대중들의 마음만 교란시킨다. 공산주의 독재주의에서 금기하고 있는 것이 추상. Why? 재현은 잘했다 못했다 판단 가능. 추상미술은 인간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듦. 러시아에서 1921년 경 추상 금지령 내림. 말레비치 제외 서방으로 망명함. 말레비치는 끝까지 조국을 지켜 러시아의 국부 같은 존재가 됨.

물질세계로 향하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정신적인 세계를 꿈꾸는 유토피아니즘.

14) 몬드리안 <구성> 1921 // 러시아 비롯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1920년대 기하학적 추상미술이 크게 발전. 1919년에 신조형주의 선언. 새로운 조형으로 가자. 회화가 절대성, 보편성, 비개별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

몬드리안 역시 비극이 없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선언(사회운동은 x). 미술->사회 영향 준다 생각.

형태의 요소를 수평과 수직의 직각의 만남. 색채는 빨강, 파랑, 노랑, 그리고 검정 회색 흰색의 무채색으로 선언(다른 색채 x). 이 색들은 자연의 핵심. 자연의 외형은 달라도 그 내면의 핵심, 본질적인 구조는 동일. 자연의 핵심, 본질적인 구조를 끌어내어 회화를 해야 한다. 그 것을 형태요소로서는 수평과 수직의 직각의 만남. 색채는 빨파노검회흰으로 규정. 🡪자연의 핵심

본질적인 모두가 그 내면은 동일. 보편적이어야 하고 절대적이어야 한다.

반 되스버그, <역구성>, 1925 / 몬드리안 <구성> 1921 // 둘 다 네덜란드 인이며 동료로서 같이 일함. 반은 사선이용. 몬드리안은 수평과 수직의 엄격한 직각의 만남. 반은 사선을 이용하니 역동적이고 활력있어 보임. 한편에서 보면 불안해 보이기도 함. 몬드리안은 견고한 안정감을 줌. 몬드리안이 가장 배척해야 할 형태 요소로서 사선(변덕스럽고 불안정하다), 색채로서 자연(자연의 외형을 연상시키기 때문). 몬드리안은 모두가 절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도 보편적으로 비극이 없는 세상이므로 불안해서는 안된다. 인간은 차이로 인해 비극적이다. 내면 핵심은 동일하고, 이를 드러내자. 본질만을 드러내서 회화를 해야 한다. 회화에서 이를 지키면 사회도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 신조형주의 역시 신지학에 기반(모두가 21c에 정신의 세계가 도래해서 천국이 될 것이다). 신지학에서 위의 색들 중요시함..? 추상미술의 내면에는 유토피아를 향한 신념이 뿌리박혀 있고, 사회주의적인 성향도 갖고 있다.

수평과 수직의 직각의 만남. 색채(빨강 파랑 노랑 흰색 회색 검정). 비대칭의 리듬(자유) – 몬드리안

칸딘스키는 부자. 자연을 보고 느낀 감흥을 추상화시킴.

말레비치는 프롤레타리아 빈농의 아들 정신적인 혁명 꿈꿈. 자연과 상관 무. 비대상의 회화(대상이 없는 추상). 자연과 전혀 관련이 없는 비대상. 자연에서 갖고 오는 것은 도둑질이다.

몬드리안은 자연의 핵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한다.

공통점 : 유토피아니즘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유토피아 건설.

이성적, 논리적. 과학기술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기하학적 추상미술가와 달리 2차 대전 일어나게 됨. 1930년에 히틀러 등장, 1939년(2차대전발발). 수많은 비극 발생.

1945년에 종전. 전쟁의 수혜는 미국. 미국은 전쟁의 피해 거의 안받음(진주만). 유럽은 초토화. 전쟁으로 인해 폐허. 영국도 공습 받음. 직접적인 전쟁터였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등장. 패전국 승전국이든 미술은 끝났음. 폐허가 된 사회를 복구시키는데 관심. But 미국은 최강대국으로 부상하며, BUT 문화 예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함.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미술에 엄청난 투자 하게 됨. 미술의 중심이 프랑스 파리->미국의 뉴욕으로 넘어가게 됨. 추상표현주의(미국이 미술의 중심이 되게 해준)

추상표현주의 – 유럽의 조형 예술의 발달을 받아들이면서 미국화 한 것.

작가 목록 🡺 7)~17) : 추상표현주의 / 19)~23) 후기 생면주의

**추상표현주의 탄생과 그 배경**

2차 대전의 파급 – 불확실성, 우연성, 본능에 대한 존중

용어 – 1945년 <뉴요커>지의 로버트 코츠(Robert coates) **추상표현주의** 명명

추상표현주의 생성 : 1942~1946년에 페기 구겐하임(Peggy Guggenheim)과 베티 파슨(Betty Parson) 화랑에서 여러 차례 전시회를 가지면서 하나의 미술사조로 형성됨.

1952년 로젠버그 – **액션페인팅** / 1955년에 그린버그 - **색면회화**

7)~12) 액션페인팅 / 13)~17) 생면주의

공통점 : 뉴욕에 거주한 젊은 미술가. 유럽미술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국적인 미술을 만들자 생각

불확실, 우연적, 본능적인 경향 가짐 – 추상표현주의. 액션페인팅은 이런데, 생면주의는 그런게 조금 덜 나타남. 1940-5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미술운동이라 생각하는 것이 좋다.